

‘검찰 개혁 · 적폐 청산’ 광주서 첫 촛불

광주지검 앞에 시민 1000여 명 모여

“촛불의 명령이다 검찰을 개혁하라. 적폐를 청산하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떠올랐다.
 5일 오후 6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지검 앞 도로에서 주최측 추산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다.
 촛불집회에서는 ‘검찰개혁, 언론적폐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광주 촛불’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 이후 광주에서 열리는 첫 집회다.
 이번 집회는 기초발언과 자유발언, 영상 감상,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자유발언에서는 시민들이 검찰개혁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심정을 토로했다.
 장진성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

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장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다”며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수사에 한 것처럼 세월호 수사를 했으면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덕 전 청와대 행정관은 “조국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었다”며 “광화문 광장이 더럽혀졌다. 국정농단을 통해 대한민국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이들이 광장을 점거하고 외치는 것들이 지난 겨울 광장에서 나올법한 말이었나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만의 검찰에서 우리의 검찰로 불러내는 과정이다”며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은 발언에서



5일 오후 6시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광주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의 조국 수사와 다른 수사 등을 비교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약 200m 앞에는 광주지검까지 행진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과 광주국민주권연대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5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광주지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1

광주·전남 경찰 5명 ‘수사상황 유출’ 기소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간 유착비리 혐의로 5명의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착비리 혐의로 기소 처분된 경찰공무원은 28명이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은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5명의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는 피의자가 체포영장으로 지명 수배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즉시 검거하지 않고 수사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 B씨는 근무중 알게된 업자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고, C씨는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1750만원을 받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됐다.



놀이터로 변신한 세종대로 어린이들이 6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 일환으로 열린 ‘도시 안 놀이터-파이프 시티’에서 직접 꾸민 파이프를 연결하며 놀이하고 있다.

전남, 자연재해 피해액 가장 많아

최근 10년간 6577억원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657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

은 3조628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복구액은 피해금액의 2.1배가 넘는 7조709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6577억원(18.1%)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기도가 5709억원(15.7%), 경남 4913억원(13.5%)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전남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는 1조2154억9692만6000원으로 전남의 복구 비용은 경남의 1조2360억여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광주의 경우 216억1739만원으로 확인됐다. 복구비용은 227억677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전국의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생존자 구조와 이재민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제19호 태풍 ‘하기비스’ 발생 북상 중

제 19호 태풍 ‘하기비스’(Hagibis)가 발생했다. 다만 한반도 직·간접 영향 여부는 좀더 예측이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기비스는 6일 오전 3시쯤 괌 동쪽 1450km 해상에서 발생했다. 현재 예측 모델에 따르면 하기비스는 일본 오키나와쪽으로 천천히 서북서진해 이달 11일쯤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 730km 부근 해상에 도달할 전망이다.
 국가태풍센터는 6일 오전 9시 기준 하기비스가 괌 동쪽 1240km까지 이동했고, 속도는 시간당 44km로 다소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기비스의 중심기압은

96hPa(헥토파스칼)이고, 최대 풍속은 초당 20m로 시속으로 환산할 경우 72km다. 하기비스는 강도 ‘소’에 소형 크기로 아직 초기 태풍 모습이다.
 하기비스는 내일 오후 강도 ‘강’에 중형 크기 태풍으로 격상된 뒤 11일까지 우리 내륙과 일본 규슈 지방 쪽을 향해 북서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에는 강도가 ‘매우 강’까지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강풍 반경이 넓어진 탓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태풍의 강도는 강풍 반경으로 결정된다.



이슈 판결

거짓 신고서로 25년간 유족보상금 받은 70대, 2심도 징역형 판결

법원 “1심형 너무 무겁지 않다”...1심서 1년6개월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거짓 신고서를 제출해 25년 동안 보상금을 받은 70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법행이 계획적인 점, A씨가 모친을 위해 보상금을 사 용했다고 주장하나 모친 등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총

319개월 동안 보상금 총 2억 9541만여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전몰군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면서 A씨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해당되지 않게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재혼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친아버지의 배우자라는 내용의 권리부활신고서를 제출해 199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5년 7개월 동안 보훈처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재혼해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거짓 신고서를 제출해 보상금을 수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행 기간도 장기간이고 수령한 보상금도 3억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데치로구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